



- 친목
- 복지후생 증진
- 언론문화 창달

大韓言論

Korea Journalists Club

사단법인 大韓言論人會

발행 · 편집인 趙昌化 인쇄인 곽선영

100-745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25 프레스센터 1405호

T. 02)732-4797, 2001-7621 F. 02)730-1270

www.kjclub.or.kr E메일 kjc1405@hanmail.net

• News Focus

뉴 라이트 '대안 교과서' 논란

▽기존 역사교과서들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며 분단, 독재, 부정부패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를 부각시켜왔다. 반면 이 책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단기간에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 있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근현대사를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 동아일보 사설 <역사인식의 지평 넓힐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

▽교과서포럼 대안 교과서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 근현대사를 '근대文明 수용'이라는 세계사적 관점에서 봤다는 점이다. '외세 침략과 이에 대한 저항'이라는 단순구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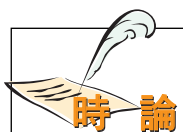
벗어나 우리 역사를 규정해 온 국제관계와 세계 경제질서에 눈을 돌렸다. 개화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이승만 등에 의한 건국 과정과 박정희 주도 '근대화 혁명'에 대한 객관적 평가, 한국 근현대사의 기본 흐름에서 벗어난 북한의 위상(位相)을 세계사의 흐름 속에서 살펴 본 것이다.

- 조선일보 사설 <시대착오 좌파 역사교육 바로 잡을 '대안 교과서'>

▽그들의 대안이라는 것은 역사 상식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기존 역사학계에서

식민지화를 부추긴 것으로 평가하는 김옥균 등 갑신정변 주역들을 근대화의 선각자라고 뒤집는가 하면, 동학농민혁명도 농민봉기로 격하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해서는 "폭력적 억압체제"라고 전제하면서도 근대문명의 학습기라고 과감히 주장한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주장하다 보니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는 노력이 눈에 띈다.

- 서울신문 사설 <'뉴라이트 교과서' 출간을 보는 눈>



'김치의 정치학'을 배우라



정재호

- 본회 논설위원
- 경향신문 정치부장 · 논설위원
- 국회의원(3선) · 현정회 고문(現)

이명박 대통령의 면목은 '실용'이다. 실용은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극점(極點)이다. 실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실용주의(노선)가 함축하는 학문적인 순·역리(純·逆理)를 다루기엔 주어진 지면이 넉넉지 않다. 굳이 사전을 들여다 볼 것 없이 글자의 생김새대로 풀자면 실속을 챙긴다는 뜻이 아니겠는가. 겹질은 털고 알맹이만 골라 잡는다는 의미다. 경제 살리기는 이미 백성의 뜻으로 정해진 명제이거늘, 국가 경영의 대들보를 여기에 박겠다는 시비 걸 까닭이야 없다. 이명박은 본디 장삿속이 밝은 사람이다. 회사의 덩치를 키우고 살찌우는 책략 굴리기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던가. 밑지는 장사는 헛장사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짝 차 있

유증은 서둘러 갈무리지어야 할 뜨거운 감자다.

MB의 정치 역량이 저울대에 올랐다. 굵은 일엔 손 씻고 시치미를 떼는 약은 처신은 '신뢰과파'의 부메랑을 만나기 십상이다. 당이 깨지면 실용전략은 동력을 잃을 것이 뻔하다. 자칫 MB리더십이 심각한 도전 앞에 알몸을 드러내는 형국이 될지도 모른다.

84%까지 치솟던 '당선자' 지지도가 막상 대통령 취임 한달만에 50%선에 턱걸이 하고 있다. 이번이다. 체질화된 '빨리' 문화 탓에 인내심이 메마른 한국인의 조급증으로 만 돌릴 것인가. 세상의 물정을 짚는 민중의 안목은 밝다. 지지율은 민심 읽기의 첫 장이다. 민심은 한 줄기 실바람에도 민첩하게 반응하는 동체(動體)인 것을. 밧줄로 끄꽂 묶어 둘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민심은 바람소리다. 바람은 보이지 않아도 소리는 들린다. 소리 듣기에 지극정성을 다하면 바람의 오간 곳도 절로 보인다고 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얼룩지우기만 해도 태산 같은 일감이다. 국제 경제 환경도 고약한 쪽으로 쳤

민심은 바람소리... 實用은 만능 아니다

묵은지의 친화력+겉절이의 역동성을

을 게다. 본래 장사에는 온정주의가 끼여들 틈이 없는 법이다.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한 음침한 모사에도 부지런히 손 때 문혔을 법도 하다.

아마도 이명박의 내면세계 중심에 자리하는 발상의 핵(核)은 이윤의 극대화 뿐일지도 모른다. 보다 큰 실리를 얻기 위해서는 논을 밭으로 밭을 논으로 갈아엎는 반전반답(反田反答)이란 역(逆)의 행작(行作)도 마다하지 않을 됴됨이다. 흔한 말로 CEO본능이요 상인근성의 원형질이다.

아무튼 발바닥에 불이 날 정도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에서 아직은 밭지 않다는 게 민초들의 눈높이다. 한편 정부조직 각료구성 등 정권출범 작업이 깔끔하지 못한데다가 인사만사의 평범한 이치도 제대로 꿰차지 못했다는 볼멘 소리가 꽤나 높은 것도 사실이다.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아니 강부자(강남 부자)따위 냉소적 풍자속어가 저잣거리를 누비는 사이에 잔뜩 틀어진 민심은 여간해서 바로 잡히지 않고 있다. 이명박은 이 시대 성공스토리의 주인공이다. 그의 허물이 빛는 부정적 파장은 민심에 에누리 없이 각인된다. 특히 집권당의 총선 공천후

첩 산중이다. 다락같이 솟는 물가잡기는 발등의 불이다. 싫든 좋든 이명박은 일복을 타고 났다. 그는 한창 바쁜 나날과 씨름한다. 바쁠 때면 필시 빠뜨리는 것이 있기 마련이다.

이 한가지만은 기어이 놓치지 말아야 한다. 진득한 마음 씹음을 훈계하는 용심(用心)의 덕(德)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뜻과도 맞물려 있다. 성공적 리더십을 담보하는 경구다.

MB의 성정은 속전속결에 익숙한 가파른 승부욕으로 경사돼 있다. 불도저라는 별호가 입증한다. 실용은 결코 시도 때도 없는 무소불위의 요술 방망이가 아니다. 겉보기에 이명박은 낙진하고 차진 맛이 덜할 성 싶다. 말 수도 해픈 편이어서 삼사일언(三思一言)의 품성이 부실해 보인다. 민감한 외교현안에도 실용의 논리를 생으로 들이대는 신중치 못한 언사로 언론비판에 노출됐다. 오죽하면 경박한 말법 탓에 자주 구설수에 휘말렸던 전임자(노무현)와 연계한 '노명박'이란 빚댄 말까지 생겼을까.

MB의 가벼운 구석 한두 군데를 건들이다 보니 불현듯 김치 이야기가 떠오른다. <3면에 계속>

방송통신위 출범

최시중 위원장 취임



이명박 대통령은 3월 26일 국회 청문회 절차와 관련해 논란이 돼온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사진·본회 회우)을 공식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집무실에서 최 위원장과 송도균(한나라당 추천 몫)·이경자·이병기(민주당 추천 몫)·형태근(대통령 임명 몫) 방통위원 상임위원에게도 임명장을 주었다. 이에 따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체제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김성호 국가정보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행 국회법은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뒤 20일이 지나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자동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ONTENTS · 이달의 大韓言論

Column & News

- 溫故知新- '프레스 프렌들리' ③

Focus

- 大言直言 ④

Photo

- 신문사진 인간애賞 紙上展 ⑧~⑨



Life story

- 세상사는 이야기 (上) ⑪

History & He-story

- 충무로의 전설 (上) ⑬

조선일보

<http://ireader.chosun.com>대한민국 최초의 스크린신문, **아이리더**

스크린신문이란, 종이신문의 탁월한 가독성과 인터넷의 편의성을
통합한 맞춤형 디지털 뉴스 페이퍼입니다



가장 중요(i-mportant)한 정보(i-nformation)를 지혜(i-ntelligent)롭게 관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나(I)를
위한 뉴스 서비스!! 대한민국 최초의 스크린신문, i-reader(아이리더)

조선일보
ireader
information • intelligence • innovation

溫故知新

‘프레스 프렌들리’

민주주의 국가는 자치정부며 자치정부의 기초는 자유언론이다. 민심과 여론은 천심이다. 천심을 전달하는 언론자유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다.

진보적 가치와 노선을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는 5년 내내 국정홍보처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을 총동원, ‘언론과의 전쟁’에 전력투구하면서 천심인 여론을 조작 또는 외면했다. 그의 보수·진보 편가르기 언론정책은 국정운영에 엄청난 후퇴와 장애구실을 했다. 노무현씨는 기자들의 취재원 접근을 저지하기 위해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이란 무기를 꺼내들고 각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는 등 악랄하게 언론탄압을 저질렀다. 그는 임기 말 60여여원의 혈세로 브리핑룸을 통폐합하고 기자들의 각 부처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원천봉쇄했다. 이런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근원적으로 침해한 반(反)민주, 반언론적 작태로서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지금 그는 막대한 돈으로 쌓아올린 대저택에서 혈세지원을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대로 노무현씨가 대못질을 한 통합브리핑룸과 각 부처 기자실의 복원작업을 착착 진행중이며 어떤 부처는 이미 임시출입증을 내주어 취재원 접근을 돕기 시작했더니 다행이다. 경찰은 작년 12월 12일밤 기자실을 지키



여 영 무

- 본회 논설위원
- 동아일보 논설위원
- 뉴스 앤 피플 대표

던 기자들을 밖으로 유인해낸후 전·의경 수십명이 들이닥쳐 기자들의 짐을 끌어낸뒤 기자실을 강제 폐쇄하기도 했다.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쫓긴 기자들은 불꺼진 ‘쫓불 기자실’ ‘PC방 기자실’에서 게릴라식 취재와 기사송고를 하느라 모진 고생을 해야만 했다. 노무현 좌파정권의 언론탄압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말해주는 생생한 실상이다. 지난날 군사정권도 감행하지 못했던 이런 해괴한 방법으로 초강도의 언론탄압을 자행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때부터 국정 슬로건으로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 그리고 선진화를 내세워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국민들은 이런 공약을 믿고 그를 530만여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대통령으로 뽑아주었다. MB정부가 경제살리기와 사회통합 등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언론 본연의 기

능과 역할은 절대적이다. 언론자유 보장 없이 이런 언론역할은 불가능하다. MB정부는 노무현씨의 ‘언론과의 전쟁’이 빚은 분열, 갈등, 혼란, 침체, 퇴행 등 갖가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재임기간 내내 공약대로 반드시 ‘프레스 프렌들리’ 언론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에서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 등 3부에 이어 제4부로 일컬어질 만큼 언론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제도화된지 오래다. 언론자유 보장없이 제4부로서 언론의 역할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언론을 조작하거나 탄압한다는 것은 선진국가에서는 상상도 못할 후진적 작태이다. 우리의 목표는 삶의 질 향상이고 선진화이다.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언론자유는 필수불가결하다.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언론이 병존하면서 각각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해나간다면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도 커다란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를 비판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다.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전달과 매개자로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국정외제를 설정,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민주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와 언론은 상호협력하면서도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의 관계에 머물러야 한다. MB정부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선진국 자유언론의 존재이유와 양식을 올바르게 인식, 재임기간 내내 자유언론에 대한 신념을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기대해 마지 않는다. [4]

‘언론대못’ 뽑고 기자실 정상화

올해 4월 7일 ‘신문의 날’(행사는 4일)은 노무현 정권이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폐쇄했던 정부 부처 기자실이 3월 중순 경찰청을 시작으로 이른바 ‘대못’을 뽑고 있는 가운데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언론인들은 본연의 역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때 전면 중단했던 가관 신문의 구독을 재개했다. 지난 3월 3일부터 가관 신문을 내고 있는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을 비롯해 경제신문의 가관을 구독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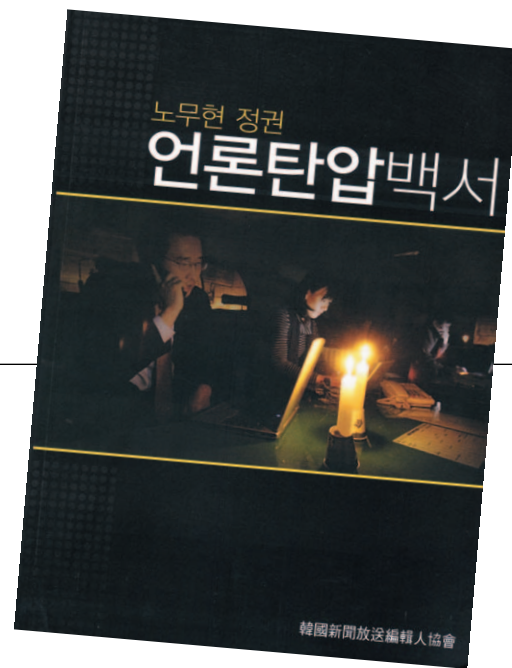
‘노 정권 언론탄압 백서’ 발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용식·조선일보 편집인)는 지난 정권의 언론 정책과 기자실 폐쇄 등에 따른 기자들의 투쟁 과정 등을 다룬 ‘노무현 정권 언론탄압 백서’를 3월 7일자로 발간했다. 이 책은 지난해 5월 노무현 정권이 본격 시도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따른 부처 기자실 통폐합과 기자들의 정부 부처 출입제한 등 일련의 조치에 대한 일선 기자와 언론 단체의 반발과 투쟁 과정 등을 중점적으로 세밀히 다뤘다.

백서는 또 ‘언론 탄압’ 조치에 관련한 주요 신문의 사실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성명서, 정당의 논평 등 참고자료를 수집해 원문을 수록했고 부록에는 언론탄압 일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문,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헌법소원 결정문을 담았다. 한국언론재단의 일부 지원을 받아 출간된 이 책은 비매품으로 언론사와 언론관련 단체, 대학, 도서관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 노무현 정부 언론탄압 일지

- 2003년 3월 ‘청와대 브리핑’ 신설. 이창동 문화부장관, 출입 기자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개방형 브리핑실 도입
- 2003년 9월 정책 비판 기사를 반박하는 ‘국정브리핑’ 신설
- 2004년 8월 양정철 대통령홍보비서관, 청와대 브리핑에 ‘저주의 국관을 견어치워라’며 동아일보 및 조선일보의 행정수도 비판 기사를 비난
- 2005년 1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년 8월 국정홍보처, ‘정책홍보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발표. 비판 언론에 대해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에 불응하도록 함
- 2006년 6월 신문법 시장점유율 제한조항 등 위헌 판결
- 2007년 1월 노 대통령,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부실한 상품”이라고 발언한 뒤 해외사례 조사



지시

- 2007년 5월 국정홍보처,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 발표
- 2007년 6월 노 대통령, “다음 정권에서 기자실이 되살아나지 못하게 대못질하겠다”고 발언
- 2007년 8월 47개 신문 방송 통신사 편집·보도국장, 취재봉쇄 조치 거부 결의
- 2007년 10월 외교부 등 정부 중앙청사 11개 부처 기사송고실 폐쇄
- 2007년 11월 각 당 대선후보, 기자실 복원과 제도보완 공약
- 2008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실 부활과 국정홍보처 폐지 발표

〈1면에서 계속〉

‘김치의 정치학’을 배우라

김치는 한국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으뜸가는 밑반찬이다. 사람 입맛 따라 다를 테지만 묵은지와 겉절이를 제일로 친다.

묵은지는 절인 배추에 온갖 양념을 섞어 1년 이상을 저운 숙성함으로써 오만가지 잡맛을 하나로 우려내는 발효식품이다.

편이한 성질의 재료들이 뒤섞인채 서로를 수용하며 용케도 참고 견딘 끝에 거듭 나는 속 깊은 맛이 일품이다. 비좁은 항아리 속의 융합으로 정향진화(定向進化)의 질서를 지키는 묵은지. 그 맵시에서 온고지정의 속내를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겉절이는 어떨까. 쉽게 곧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재료는 단순하고 쫄면 나지 않도록 살짝 양념 뿌려 버무린 다음 한나절만 두면 칼칼한 자극을 즐길 수 있다. 딱히 김치 패스트푸드다.

승부차 531만여표는 MB정권의 든든한 등반이다. 동시에 여차하면 성난 밀물로 돌아설 수도 있다. 전방위 MB 실용전선에 함정은 없는가? 실용 쓰나미에 밀려 정작 챙겨야 할 더 소중한 것들이 뒷전으로 내몰리고 있지는 않는가?

묵은지의 넉넉한 몸가짐에서 풍만한 친화력을, 겉절이의 싱그러움에서 풋풋한 역동성을, 친화와 역동이 합작하는 ‘김치의 정치학’에서 통합의 리더십을 만나고 싶다.

大言直言

“어, 아직도 ‘노무현 정부’ 네”



지용우

- 본회 논설주간
- 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
- 경향신문 사우회장

노무현 (전)대통령의 인사정책을 풍자한 이런 우스개가 있다.

새로 채용한 요리사가 아부만 잘 하고 요리솜씨는 서툴러서 운전기사에게 요리를 하게 하고, 운전기사일은 대신 문지기에게 맡겼다. 얼마쯤 지나자 이번에는 이 순서를 거꾸로 돌려보는 인사이동을 단행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 즐겨 쓰던 이른바 ‘회전문 인사’를 비아냥댄 페러디다.

그는 전문성과 능력보다는 자신과 뜻(코드)이 통하는 측근들을 요직에 돌려가며 중용하는 ‘코드 인사’를 즐겨 썼다. 결과는 뻔했다. 행정부의 주요

더구나 이번 2008년의 정권교체는 단순한 ‘체인징 프레지덴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좌파정권이 10년만에 종식되고 실용주의적 시장경제를 표방한 이명박 보수 우파 정권으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이루어진 극적인 전환점이 아닌가.

그들이 내세우는 ‘임기’ 조차도 명분이 약하다. 노 대통령이 레임덕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임기가 끝나가는 날까지도 즐기게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를 단행해 왔음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신문법’이란 회대의 악법을 만들어 언론과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놓고,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감지할 수 있는 청와대의 이지원(池知園) 파일은 기능마비 상태 등등 이명박 정부가 애를 먹는 일들은 한 둘이 아니라는 뒷소문이다.

정부수립 60주년이나 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직의 인수인계를 할 때마다 이런 유의 전근대적 혼선과 불협화음이 앞으로는 절대로 재현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경제 대통령’이란 입맛 당기는 캐치프레이즈로

정권 바뀌어도 ‘코드 임명직’은 요지부동 “그 얼굴이 그 얼굴”... ‘국민 뜻’은 어디로

포스트와 정부투자기관의 장(長)자리는 정통과보다는 낙하산 부대들이 대거 점거하는 웃지 못할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었다.

역사적인 12·19 대선결과 노무현 시대는 막을 내리고 이명박 시대가 도래했는 데도 노무현 정권이 각계에 심어놓은 임명직의 장들은 ‘임기’를 명분으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배짱 좋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 것은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이기 이전에 정치도의적인 문제다.

대체 정권교체란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의 추종 세력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권을 선택한 국민의 뜻을 겹쳐히 받들줄 알아야 한다. 막말로 집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오기나 심술로 방을 비워주지 않고 애를 먹이는 것은 후임자를 골탕먹이는 몰염치한 행위일 뿐이다.

국민들의 큰 기대를 모으게 했던 이명박 정부도 요즘 돌아가는 양상을 보노라면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고소영’ ‘강부자’로 대변되는 정부 요직의 편중인사는 노무현식 코드인사의 재판이 아니냐는 냉소를 사기에 충분하고, 최시중의 방송통신위원장 발탁이라든지,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의 공천과동, 박근혜계파와의 불화설 등이 그의 리더십 신뢰도에 의문점을 갖게 한다.

노무현 정권에 식상한 국민들이 성공한 기업가형 CEO출신인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거는 기대가 대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우선 그가 경제를 살릴 능력을 가졌다는 확신에 서고, 자수성가한 재력가로서 적어도 권력형 비리 따위와는 거리가 멀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노 정권에 실망한 사람들은 그에게 최소한 노무현식 정치스타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그 반대로 만하면 된다는 이상주문까지 하는 마당이다. 속담에 ‘홍보면서 닳는다’는 말도 있으니 이명박 정부는 그 점을 경계해야 할 줄 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대한민국 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 △각 해외문화원

◇산하 공공기관=△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저작권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경북관광개발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한국문화진흥 △한국문화번역원 △예술의전당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서울예술단 △전국문화회관협회 △정동극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체육산업개발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코드 단체장 물러나라”

柳 문화 촉구... 당사자들 반발



유인촌(柳仁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산하 단체장 물갈이’에 대한 소신을 거듭 밝히면서 김정현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해당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퇴진을 요구했다.

유 장관은 3월 17일자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과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 등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순리”라며 “끝까지 자리에 연연한다면 재임 기간 중 어떤 문제를 야기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그 사례로 김 위원장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위 내홍으로 김병익 위원장이 용퇴해 그 자리를 이어받은 것인데, 1기 위원으로서 연대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했고, 김 관장에 대해서는 “임명 초기에 정준모 전 학예실장을 쫓아낸 것은 지나쳤다”고 퇴진 이유를 들었다.

유 장관은 또 다른 ‘코드 인사’로 지목받은 신현희 국립극장장에 대해서는 “예술적 성취는 있었다”고 다소 유보적 태도를 취했다. 반면 지난해 말 예술의전당 화재사건과 관련, 정은숙 국립오페라단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은 책임론을 들어 퇴진을 촉구했다.

광화문 문화포럼 강연에 이어 중앙일보 인터뷰선 實名 거론

한편 퇴진 대상으로 지목된 김정현 위원장은 “이름까지 거론해가며 그만 두라고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수 관장도 정준모 전 학예실장 문제는 행정소송에서 기각된 사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장관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지만 임기직에서 물러나라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현택 사장과 정은숙 단장 등은 이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유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12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광화문문화포럼(회장 남시욱)에 강연자로 참석해 “문화예술계 ‘코드 기관장’들은 물러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하고 “지난 정치와 맥을 같이한 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시면 괴로우실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이라는 강연을 한 뒤 ‘현직에 남아 있는 지난 정부 코드 인사’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임기는 보장되는 게 좋지만 공정한 과정이었는지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사표 단체장 3명중 1명은 반려

한나라당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노무현 정부 ‘코드 인사’의 자진사퇴 요구이후 처음으로 문화부 소속 기관장 3명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으며 이 중 1명은 사표가 반려되었다. 지난 3월 17일 정순균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사장과 신현택 예술의전당 사장이 문화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오지철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3월 14일 문화부를 통해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이들 중 오 관광공사 사장은 전문성이 인정돼 이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했다.

(뉴스종합)

太平漫評

沈載福 본회회우



공기업 민영화 대선공약 실행하면 해결될 것

신문시평

보수·진보 틀 깬 ‘공천’ 비판

지난 3월 정계와 언론계의 최대 화두는 17대 국회에 나갈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과정과 이를 보는 언론, 특히 신문의 보도 동향이었던 것이다. 새로 구성될 국회가 10년만에 ‘좌’에서 ‘우’로 정권교체를 이룬 이명박 정부가 그들의 정책과제를 순조롭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다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의 풍향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은 별도의 공천심사기구를 만들고 중립적인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해 나름대로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등 공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계도 이와 같은 정계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투표장에 나갈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후보자들의 당과 개인적 인기에 못지않게 공천과정에 대한 언론의



이 병 국

· 본회 논설위원
· 한국경제 편집부국장
· 한서대 교수(現)

천과정 보도에 부정적이었다. ‘한나라공천 왜 이러나’(경향신문 3. 12일), ‘한나라 공천, 도대체 기준이 뭔가’(경향신문 3. 15일) 등 한·경·서는 물론 ‘지금 한나라당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조선일보 3. 20일), ‘계파 이해 못 벗어나는 한나라 공천’(중앙일보 3. 13일)도 한나라당의 무원칙을 일제히 비판하고 있다.

물론 두 정당의 공천과정에 ‘중립적’ 기초를 보인 사실도 조·중·동 또는 한·경·서가 각각 5건 정

20일간 38개 관련社說 분석 결과 조중동·한경서 6개紙 논조 엇비슷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긍정적 시각	조·중·동 2	한·경·서 5
	한·경·서 1	조·중·동 1
부정적 시각	조·중·동 12	조·중·동 1
	한·경·서 6	-
중립	조·중·동 5	한·경·서 5
소 계	26	12

취재 보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언론계는 언제부터인가 ‘조·중·동’이라는 별칭과 함께 보수적 논조를 표방하는 측과 ‘한·경·서’로 통하는 진보적 그룹으로 나뉘어 사안마다 흔히 대립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에서 집권한 한나라당과 야당인 통합민주당의 공천과정을 지켜보는 언론의 시각은 어떤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20일간 이들 6개 신문의 공천관련 사설을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중립적’으로 분류해 보았다.

관련 사설 38개 중 한나라당 공천과정에 긍정적인 견해는 조·중·동 중 2개, 한·경·서 중 1개인 반면 민주당에 긍정적인 것은 한·경·서 5, 조·중·동 1로 신문의 보수·진보적 성향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설이 민주당에 긍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공천혁명 평가한다’(서울신문 3. 6일) 등 한·경·서는 물론 ‘대선후보까지 탈락시킨 민주당 공천’(조선일보 3. 14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사설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의 공

도였다. ‘여야 공천 도덕성 잣대 엄정히 적용해야’(서울신문 3. 5일), ‘물갈이 공천은 기본일 뿐이다’(한겨레 3. 10일) 등 한·경·서의 논조가 그 예이다. 조·중·동의 사설로는 ‘공천 승자들의 자질과 국가관, 유권자 따져야’(동아일보 3. 15일), ‘흥미로운 수도권 총선민심’(조선일보 3. 18일)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중립적 논조를 보이고 있는 사설이라 하더라도 그 함의에 깔려있는 뜻을 살펴 보면 ‘여당으로선 민심이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변화’(조선일보), ‘한나라당에서는 정치 보복설부터 계파간 나누기... 인물란에 허덕이는 야당의 고민’(한겨레) 등에 비추어 야당보다는 여당인 한나라당에 가시돋친 채찍을 들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만 본다면 사설을 통해본 조·중·동, 한·경·서 또는 보수와 진보라는 대립적인 보도의 틀은 깨지고 특정 사안에 따라 자사의 견해나 주장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보수·진보를 내세운다 해도 언론은 역시 공정한 보도가 제일이라는 이야기다. 적어도 관련 사설로만은 그렇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 대한 신문의 ‘잣대’가 선거후에도 계속될 것인지는 아직 추측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이달 9일의 선거결과와 그 이후의 정계 흐름을 인내심있게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W]

방송시평

안방을 뒤덮은 ‘황색’ 먼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채널을 바꾸며 편하게 보는 것이 나의 TV시청 태도다.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뉴스를 제외하고는 특정 프로그램을 가려보지도 않는다. 공중파와 기본 프로그램만 가입한 케이블 TV만 시청하는 데도 심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너무 많다. 성적표현이 너무 노골적이고 출연자들의 선정적인 연기나 내용이 너무 하기 때문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대하면서 1960년대 대학시절 울화를 터뜨리시던 김 교수님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친구가 선물로 준 TV를 보다가 화가 치밀어 발로 걷어차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많다는 말씀이셨다. TV는 바로 스승이고 본받아야 할 대상이며 성경(Bible)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도덕적이고 비교육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는 질타



호 천 응

· 본회 회우
· KBS 전 청주 총국장
· 전 신성대학 교수

자신의 성욕과 성감대에 대한 얘기도 당당하게 털어 놓는다.

과도하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남편, 관계할 때 큰 소리를 지르는 아내, 정력이 너무 센 남편은 무죄인가 유죄인가?

선호하고 자주 사용하는 섹스의 체위는 어떤 것인가? 특이한 상황에서 성 관계를 맺은 경험 등등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나누면서 사회자와 패널인 유부녀들은 마구 좋아하고 웃어대며 TV에 출연한 자신들을 마냥 자랑스러워하는 듯

밤낮 안 가리는 섹스·불륜·말장난 공중파·케이블 모두 저질경쟁 나서

이셨다. 그 때의 텔레비전은 그래도 점잖았을 텐데도 말이다.

낮 시간에 공중파 TV를 보다가 크게 놀랐다. 연예인 부부가 임신을 했는데 남자 연예인이 부인의 부른 배를 들춰내 보이고 쓰다듬고 거기에 키스를 하고 아기 신발을 배에 대주고 하는 장면이었다. 공중파에서 임신한 여인의 배를 드러내 보이고 쓰다듬는 장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친 것이었고 민망한 생각이 들었다.

요즘 스타들이 나와서 말장난으로 일관하는 프로그램이 많다. 말재주만 살리면 되니 제작하기는 더 이상 편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남녀연예인들이 무릎을 맞대고 말장난을 해댄다. 첫 키스는 누구하고 언제 했느냐? 첫 관계의 상대는 누구였느냐? A와 B는 어떤 관계냐는 등의 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로 프로그램을 꾸려가는 경우가 흔하다. 선정적이거나 외설적인 낮 뜨거운 대화도 대수롭지 않게 나누곤 한다. 장소도 목욕탕이나 찜질방 같은 데서 목욕 가운데 걸치고 말장난을 펼쳐댄다.

공중파와는 달리 CATV 쪽은 정도가 지나치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법하지만 마냥 너그러울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성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한 프로그램에서는 유부녀들이 패널로 출연해서 섹스에 대한 기탄없는 얘기들을 털어 놓는다. 성생활 문제와 실상 뿐만 아니라

한 모습까지 보여준다.

또 다른 CATV에서는 탐사고발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느 지하철 역 근처에서 청소년들이 키스 아르바이트라는 신종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호스트바의 실상을 고발한다면서 호기심을 유발하기도 한다. 각종 성매매 장소와 행태에 대한 자세한 리포트를 내보내기도 한다.

어느 CATV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부탁으로 상대의 불륜현장을 추적하면서 몰래 카메라를 동원하는 형식으로 제작한다. 온갖 행태의 불륜과 탈선의 경위와 장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시청률을 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어떤 관계의 사람과 어떤 성향의 인물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종류의 불륜을 저지르는가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심야에만 방영되는 것들이라면 그런대로 눈감아 줄 수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낮 시간에, 어느 경우는 재탕, 삼탕으로 안방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불어오는 황사바람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빈도도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에 못지않게 TV의 선정적인 프로그램들, 음란의 황색 먼지도 더 진하고 세차게 거실과 안방을 뒤덮고 있다.

오래 전에 타계하신 김 교수님께서 지금의 이런 방송들을 보시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상이 되질 않는다. [W]

봄나물로 춘곤증 말끔히... 부부화합도

춘곤증을 이기려면 식사량을 약간 줄이면서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고,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나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봄나물은 피로회복 뿐 아니라 성기능도 증진시켜 부부금실도 더욱 돈독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부추, 연고, 파, 마늘, 생강은 불교와 도가에서 성욕을 항진시킨다고 해 금하는 오신채(五辛菜)란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한 봄나물들 중 몇 가지를 소개한다.

◇달래 = 마늘처럼 맵고 뜨거우며 달래고 설화가 암시하듯이 속을 데우고 양기를 보강하여 음욕이 일어나게 한다. 위장 운동을 촉진하면서 소화기능을 항진시키는 효능이 있고 체내에 흡수가 잘되는 다량의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다. 열이 가해지면 비타민이 파괴되므로 초고추장 같은 데 무쳐서 날로 먹는 것이 원칙이다.

◇두릅 =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는 두릅의 뿌리껍질과 나무껍질을 ‘자노아(刺老鵝)’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노인을 자극하여 젊게 만든다’는 뜻이다. 성기능 허약으로 양기가 부족하고 때로 다리에 힘이 없으면서 보행 장애가 있을 때, 또 기운이 없고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날 때 유효하다. 항피로작용, 면역기능 항진, 중추신경흥분, 혈압강하, 당뇨병에서의 혈당강화작용 등을 나타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성질은 차거나 덥거나 하지 않고 완만한 기운이 있으며 쓴맛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쓴맛에 의해서 체내에 있는 피로물질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데 좋은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무기력하면서 입맛이 없는 사람이나, 잦은 스트레스로 머리가 맑지 못한 사람은 아침에 몇 개 정도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상당히 효험을 볼 수가 있다.

◇씀바귀 = 체내의 나쁜 기운과 열기를 없애고 심신을 안정시키면서 잠을 몰아내는 효과가 있어, 예로부터 춘곤증 극복을 위해 많이 먹던 채소다. ‘이른 봄에 씀바귀 나물을 먹으면 그해 여름 더위를 타지 않는다’는 말이 전하기도 하는데, 이는 갑작스런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위장이 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다는 뜻이다. 끓는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으로 무쳐 먹는 것이 좋은데, 성질이 차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돌나물 = 다른 채소들은 대체로 오장육부에 골



봄도 캐고 가족화합도 다지고... (세계일보)

고루 작용하는 데 반해, 이 돌나물은 간에 특징적으로 작용하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간염으로 말미암은 황달이나 간경변 등의 질환을 앓는 사람이 먹으면 좋을 뿐만 아니라 간에 있는 열을 내리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무엇보다 과로나 스트레스로 충혈이 잘 되고 피로가 극심한 사람에겐 특별한 효과가 있다. 흐르는 물에 씻어 날로 먹는 것이 원칙이며 초고추장에 버무려 먹으면 입맛을 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과일 · 야채 · 돼지고기로 황사 피해 예방 물 많이 마시고 식염수로 콧속 청소를

황사는 최근 몇 년간 계절을 가리지 않고 위세를 떨치고 있지만 그래도 봄철에 특히 심한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면역성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들은 물론 평소 알레르기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될 수 있는 대로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할 경우라면 차단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황사 피해를 예방하는 음식은 물과 과일이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은 미세먼지를 배출시키고 건조한 목, 코,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또 비타민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각종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누구나 다 아는 황사 대비책’을 정리해 본다.

△음식관리=야채와 과일은 특별히 깨끗이 씻어 먹어야 한다. 식초 한 방울을 떨어뜨린 물이나 베이킹

소다를 뿌려서 먼지나 중금속이 잘 씻겨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

먼지를 많이 마시면 흔히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돼지고기. 돼지고기는 몸이 건조한 것을 막아주고 더러움과 가래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다.

△코 관리=황사 먼지는 입자가 크기 때문에 코 점막에 특히 잘 달라붙는다. 때문에 콧속도 식염수로 헹궈 안전하다. 코로 식염수를 빨아들인 다음 입으로 뱉어내는 방법이 좋다. 아이들은 면봉을 식염수에 적서 콧속을 살살 닦아내도록 한다. 코가 쉽게 건조해지고 숨쉬기가 힘들 때는 뜨거운 물이나 녹차, 보리차를 마시도록 한다.

·알림 : 그동안 (上)·(中) 2회에 걸쳐 연재했던 「줄서야 먹는 식당」(下)편은 필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게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양지 바랍니다.



‘발끝 부딪치기’

장준봉 (전 경향신문 사장)

지난 2005년 가을, 휴가 중 친구들과 서너날 골프를 치고 집에 돌아와 자동차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오다 앞으로 넘어지듯 주저앉았다. 고희(일흔)를 넘기면 무릎도 약해지고 다리 힘도 떨어진다더니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었다. 무릎이 약해지니 계단을 오르내리는 일도 쉽지 않았다. 한참을 끄끙대며 아파트 계단을 겨우 올라갔다.

무릎에 좋다는 약을 먹을까 하다가 단학센터 지도자 한 분이 권해서 ‘발끝 부딪치기’를 매일 200번씩 하게 됐다. 발끝 부딪치기는 다리를 쭉 펴고 양 발꿈치를 모으고 엄지발가락 모서리만 톡톡 쳐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다. 200번씩 하는데 소요시간은 2분 정도. 처음에는 2분도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래도 한번 시작했으니 효과를 볼 때까지 해보자는 믿음으로 틈나는 대로 발끝 부딪치기를 했다.

두 달쯤 지났을까. 무릎은 물론이고 다리 힘이 상당히 좋아져 행동도 민첩해진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테니스를 치면 허벅지와 종아리가 당기고 자주 쥐(경련)가 났다. 또 다음날까지 다리가 뻑뻑해서 애를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증상이 모두 사라졌고 잠도 잘 잔다. 몇 가지 효과를 체험하자 발끝 부딪치기를 하는 재미가 쏠쏠해졌다.

발끝 부딪치기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말에 200번에서 500번으로, 그리고 5개월 뒤에는 1,000번으로 숫자를 늘려갔다. 이제는 하루라도 안하면 몸이 찌뿌드드하다. 배변도 좋아지고 얼굴색도 밝아졌다. 조찬모임에 나가면 다들

하루에 2백~1천번이면 효과 만점

무릎 튼튼... 배변·숙면에도 도움

“무슨 좋은 일이 있느냐?” “무슨 약을 먹느냐?”고 묻는다.

우리처럼 일흔이 넘은 분들을 만나면 자연히 건강얘기를 많이 한다. 나는 그 때마다 발끝 부딪치기를 알려 준다. 요즘은 친구들 사이에 발끝 부딪치기에 대한 입 소문이 났는지 사방에서 문의가 들어온다. 제일 많이 묻는 게 “1,000번을 치는 것이 힘들지 않느냐, 숫자를 어떻게 세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해온 방식을 알려줬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핸드폰에 시간을 맞춰놓고 10분에 얼마나 하는가를 알아 보았다. 10분이면 1,200번 정도였다.

요즘은 시간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TV를 틀어놓고 뉴스를 보거나 라디오의 음악을 들으면서 한다고 알려줬다. 이렇게 하면 천천히 해도 3,000번 정도는 족히 할 수 있다. 친구들도 다들 그게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인다. 이제는 주변 친구들도 발끝 부딪치기의 효과에 감탄한다. 한 친구는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려고 자주 잠을 잤는데 요즘은 5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다. 또 한 친구는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좋아져 머리 회전이 빨라진 것 같다고 했다.

얼마전에 나는 친구랑 바둑을 두려고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생각해보니 안경을 두고 나온 것이다.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안경을 안 끼면 보이지 않던 길건너편의 도로표지판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안경을 벗고 다닐 만큼 시력도 좋아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京郷사우회보 2월 1일자)



“나하고 연애할까?”

한 아가씨가 낯술을 마시고 어지러워 공원 의자에 앉았다. 주위에 아무도 없자 아가씨는 하이힐을 벗고 의자 위에 올라가 다리를 쭉 펴고 즐겼다. 노숙자가 아가씨에게 어슬렁거리며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나하고 연애할까?” 깜짝 놀라 잠이 달아난 아가씨가 노숙자를 째려보며 말했다. “이봐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싸구려 연애 상대가 아니예요!” 노숙자는 눈을 꿈쩍도 하지 않고 아가씨에게 말했다. “그럴 마음이 없으면서 왜 내 침대에 올라가 있는 거야.”

一笑一少

一怒一老

못 말리는 신문의 ‘언어公害’

‘박빙(薄氷)’ · ‘끼어들다’의 오류



서강화

· 본회 회우
· 조선일보 편집부국장
· 壹蓑 正音雅言학회 대표

2004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전(選舉戰)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다. 국내 신문들이 케리와 부시 양측의 지지세가 어금버금 난형난제(難兄難弟)의 형국임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초박빙’이란 생소한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것이 금방 유행을 타기 시작했다.

국어사전에 없는 ‘초박빙’은 한자어인가? 외래어인가? ‘초’는 아마도

‘super’의 뜻인 듯한데, 그럼 ‘박빙’은 무엇인가? 漢字語라면 ‘薄氷’일까? 그

仲), 접전(接戰), 비견(比肩), 호각(互角) 같은 유어(類語)와는 거리가 멀다.

백중·호각 등의 뜻으로는 ‘박빙·초박빙’ 말안돼
피동태 ‘끼어들다’는 ‘끼이어=끼여들다’로 써야

렇다면 ‘언제 꺼질지 모를, 아슬아슬한 불안상황’의 비유는 될지언정 ‘백중(伯

이 말이 신문 제목 뿐 아니라 방송용어에도 번져 인터뷰에 나선 대학교수들도

“박빙”을 남발하고 있었다. 그 4년 후인 2월 5일자 조선일보 A2면 톱 제목 〈힐러리/오바마 “박빙”〉으로 또 되살아났다. 3월 2일 10시55분 SBS-TV도 〈오바마-힐러리 박빙〉이라고 보도했고 3월 4일 15시 10분 YTN-TV는 “오바마-힐러리 초박빙 접전”이라는 멘트가 자막(字幕)과 함께 방송되었다. 하기가 ‘추도(追悼)’와 ‘추모(追慕)’도 분간 못하고 다리의 난간과 교각을 혼용하기도 하는 등 기자들의 어휘력 빈곤이 문제이긴 하지만 NIE(신문을 교재로)를 자랑하는 신문들이 이렇게 언어公害(言語公害)를 뿌려도 좋은 것일까?

맞춤법은 다 통달한양 자부하는 지식인들이지만 文法지식은 거의 공백상태이다. 우선 몇가지 실례(實例)들을 보자.

1) 조선일보 07. 11. 5. 〈金大中칼럼〉 첫 단과 셋째단 “막판에 끼어들어” “이 회창씨가 끼어들어”는 모두 ‘끼이어=끼여’의 오류.

2) 조선일보 07. 12. 10. 〈하영선 칼럼〉 제2단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었다”는 ‘끼였다’의 오류. “5조달러 클럽의 日/ 中사이에 낀 1조달러 클럽”은 ‘끼인’의 오류.

3) 조선일보 08. 2. 29. 〈만물상〉 제3행중 “종말론 집단에 끼어들었다”는 ‘끼여’의 오류.

4) 조선일보 08. 3. 1. B6면 〈고향 온 노인...〉의 제 8행째 “진보니 보수니 하는 이념은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끼이어’의 오류.

위 6례의 경우, 〈끼다=양자 사이에 제3자가 개입 또는 삽입된 상태〉를 서술하는 타동사(他動詞)의 피동태(被動態)활용의 오류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영어문법은 기초에서 〈文의 5形式〉을 통효해야 하고, 自動詞와 他動詞를 다 분간하는데 지식인들마저 한글 문장을 쓰면서 피동태와 使役形의 분간에 아랑곳없어졌다. 이러한 탈선에도 국어연구원은 ‘나 모른 척’이다. 이 나라에는 良識있는 국어교사도 없다는 말인가?

친구야! 친구

한국일보 견습동기 故 홍성원 형



이순기

· 본회 회우
· 한국·중앙 편집부장
· 서울신문 편집부국장

보고 싶은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여러 사람일 수도 있다. 굳이 한 사람 꼽으려면 이미 타개한 동기생 홍성원군을 생각해 본다. 한국일보 견습 동기생 6명, 그 중 한 사람이 홍성원이다. 헤어졌다 만났다 하면서 신문기자 인생길을 함께 걸었다.

세종로 네거리의 교보빌딩 뒷길은 원래 중학천. 복개되지 않은 개천이었다. 홍군과 함께 이 개천 길을 내려오면 빈대떡 대포집들인 청대문집과 열차집을 내 집처럼 드나들었다.

만원이어서 자리가 없으면, 다음은 청계천으로 간다. 복개 고가차도가 건설되기 전이다(59년).

개천가에 좌판이 즐비하다. 전등은 없고, 카바이드 불로 밝힌다. 풍로도 없다. 빵바닥을 파서 19공 연탄을 불 붙혀 넣는다. 연탄 위에 그대로 석쇠를 올려놓고 곱창을 구워 먹는다.



대한언론인회 가을소풍(1990. 11. 7.)... 해남 땅끝 토마리에서 홍성원(중앙) 이순기(오른 쪽) 왼쪽은 임윤재 선배.

식탁도 의자도 지붕도 가리개도 아무것도 없는 완전 개방. 촘촘히 앉은 손님들, 홍군과 나, 그리고 주모도 빵바닥 거적매기에 덥석 앉는다.

술은 뭐! 김포 특주라나! 카바이드로 양조한 것 아니면 이룸도 상표도 없는 막소주.

연탄불에 검게 그을리고, 움푹 우

69년 늦여름. 홍군은 워싱턴으로, 나는 뉴욕으로 특파됐다. 그러던 중에 불행이 닥쳐왔다. 대한일보가 ‘자진폐간’에 몰려서 문을 닫았다. 모두가 고생했지만 홍군은 이국땅에서 건강마져 망가지는 고통을 겪었다. 서울로 돌아와서도 입원하기에 이른다.

신병치료를 위해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그 하루 전날, 병실로 홍군을 병문안... “잘 잤다 와! 살아서 돌아와야 한다...”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나 운명은 거기까지였다. 서울로 돌아와서 한 달도 못 있다가 기어코 세상을 떠났다.

언론인들 모임에 참석하면 이따금 홍군이 생각날 때가 있다. 병실에서 손잡았던 그의 체온!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래서 홍군이 보고 싶어지게 됐다.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빈다.

옛 청계천 카바이드 술의 추억만 남기고...

그러진 주전자에 자그마한 독에서 퍼 담아 준다. 한 주전자가 한 되라지만 따지자면 반 되 좀 넘는다.

곱창 곱는 냄새에 연탄 연기와 가스... 바람결에 옆자리에서 날아오고, 그 쪽으로 날아가고... 그래도 주머니 받거나 잡담하며 그 날의 피로를 푼다.

홍군과 떨어졌다가 대한일보에서 다시 만났다.

www.mbc.co.kr



One MBC, Worldwide MBC



2008년 ‘신문사진’

심사평

「입가에
부자가

「줄잇는

수상작품

대상 「입가에 머문 발가락」

우수상 「아버지 곁으로」

우수상 「줄잇는 자원봉사자」

2008년도 신문사진
락」(조선일보 조인원
신원건 기자)와 「줄
선택됐다.

대상인 「입가에 머
에 참가한 독일의 양
렌 대학)가 발가락 사
긴 순간을 포착한 사
니라는 사실을 암시적
다. 데그너 교수는 정



「입가에 머문 발가락」
조인원 기자(조선일보)



가장 받고 싶
었던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사실 이 사진
은 대회 자체를
설명하는 뉴스
사진에 묻혀서

함을 건네 받은 후에, 그녀를 취재하
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알려도 좋겠
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애착은 있었지만 평범한 한 장의 사진
이 버려지기 전에, '인간이 담긴 뉴스
사진'을 끝까지 살려준 선배들에게 감
사를 드립니다.

“장애는 없다” 버려질뻔한 이 한컷의 사진

버려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데스크와
선배들의 노력으로 인간미가 담긴 사
진을 살릴 수 있는 지면에 게재될 수
있었습니다.

두 팔이 없지만 보통 사람보다 몇배
의 뒹을 하는 국제변호사 테레사 데그
너.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하고 명

기자 초년병 시절부터 장애인 취재
를 준비할 때마다 용기와 격려를 아
끼지 않은 회사 동료, 선배들과 특별
히 최순호 선배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연대 배웅호 사무총
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평생 인간이
담긴 사진을 찍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버지 곁으로」
신원건 기자(동아일보)



‘인간애’ 라는
아름다운 말이 들
어간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사
진기자로써 ‘사람
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일하고 있

고 박인철 대위 안장식이 열린 지난
해 7월 23일은 지루할 정도로 무더웠
습니다.

온갖 병역 논란속 진정

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계기가 됐습
니다. 좋은 기회를 주신 분들께 감사드
립니다.

비행 훈련 도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23년전 전투기를 타고 한미연합훈련
에 참가했다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아
버지 고 박명렬 소령 묘소 옆에 나란히
합장되는 순간은 박 대위 가족들에게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애賞』 수상작 紙上展

출품작 모두 105점 7일 신문의 날 施賞

「머문…」 양팔은 없어도… 발가락으로 글쓰다 사색에 잠겨

「代이어 전투기 조종하다 순직한 가족 사연 「아버지 곁…」

「자원…」 泰安의 기적을 일궈낸 희생과 사랑의 봉사 담아

인간애상 대상(大賞)에 「입가에 머문 발가
기자), 우수상에 「아버지 곁으로」(동아일보
있는 자원봉사자」(중부매일 노승혁 기자)가

「머문 발가락」은 지난해 9월 ‘세계장애인대회’
팔 장애인 테레사 데그너 교수(47·베스트팔
리아에 펜을 꽂아 글을 쓰다 잠시 사색에 잠
긴으로 장애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아
니라고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큰 점수를 받았
고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위해 변호사 활동도

하는 사회운동가로 비 장애인보다 왕성한 활동으로 유명하다.
우수상을 수상한 「아버지 곁으로」는 20여년 전 전투기 조종사
였던 아버지를 추락사고로 잃은 공군 조종사 고 박인철 대위가
자신도 아버지처럼 야간비행 도중 순직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하
고 있다. 박 대위가 아버지의 묘소 옆에 나란히 합장되는 안장식
을 취재한 이 사진은 지도층의 병역의혹이 끊이지 않는 사회분
위기에 진정한 나라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준다
이 사진의 영광을 순직자,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군인들에게
올린다.
「줄 잇는 자원봉사자」는 지난해 온 국민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사고의 충격을 온몸으로 극복하는 자원봉
사자들을 담고 있다. 해변에 몰려드는 검은 띠 앞에서 자갈과 모
래를 닦아내는 자원봉사자의 모습을 ‘성자’처럼 촬영해 재앙이
나 슬픔을 극복하는 힘은 봉사자들의 희생적인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번 심사에는 전국의 70여개 매체에 소속된 한국사진기자협
회 550여 회원이 105점을 출품해 “인간애”를 주제로 한 신문사진
의 흐름과 나아갈 길 등을 보여줬다. 다만 올해 출품작들은 예년
보다 휴머니즘(인간애)이 강렬하게 표현된 작품이 다소 적은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신문사진 인간애상”은 4·19 민주혁명 당시 현장을 취재한
1960년대 사진기자들이 주축이 돼 선후배가 모인 “한국신문사진
동우회”가 자신들이 현역시절 미처 배려치 못한 “인간애”를 실천
하며 노력하는 후배기자들을 일깨워 주기 위해 1991년 제정, 해
마다 시상해 왔다.

2007년부터 대한언론인회에 시상권과 시상기금을 기탁하여 신
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하기로 하고 있으며 수상작의 심사와 선
발은 한국신문사진동우회가 계속하고 있다.

박 용 윤 (본회 회우·한국신문사진동우회장)



아버지의 뒤를 따라 갔지만 박 대위
의 가족들은 의연했습니다.
박 대위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종
사의 꿈을 키울 때도 가족들은 묵묵히
후원자였다고 합니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병역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데 나라를 위해 헌

대한 나라사랑 일깨워

신한 분들은 쉽게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수상이 순직 군인들과 그 가족분
들을 기억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겠습
니다.



기름 유출 사고
가 발생한지 100
여일을 넘기고 있
는 가운데 지금까
지 태안군을 방문
하여 기름제거 복
구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및 군
인, 경찰 등은 태안해경 집계에 따르면
161만1952명(3월 16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가 2월 21일 자원봉사자 100만

「줄 잇는 자원봉사자」 노승혁 기자(중부매일)

명을 기념하는 행사를 펼친 이후에도
꾸준히 발길이 이어져 약 60만 명 이상
이 매일같이 태안을 방문하여 힘겨운

도 깨끗하게 만들자’는 심정으로 구슬
땀을 흘렸다.
또 봉사자들은 일회성 참여가 아니
라, 2차, 3차 연속 참여 속에 방재요령
을 터득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더
욱 효과적인 방제작업 시스템을 만들
기에 일조했다.

세계가 주목한 한국인들의 재앙극복 열정

기름과의 전쟁을 계속 펼치고 있다.
기업과 정부기관, 대학가 등에서도
‘태안 자원봉사’가 하나의 ‘문화 아이
콘’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들은 사방팔
방 피해현장을 찾아다니며 ‘돌 하나라

태안의 기적, 서해안의 기적을 넘어
세계의 기적으로 거듭나고 있는 태안의
기름제거 복구현장. 식을 줄 모르는 국
민들의 열정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자원봉사자들의 발길을 기대해 본다.

“神의 땅, 聖과 性を 함께 보았다”

書舍餘話 ②



‘시간의 수레를 타고’ 이시환 著(신세림 刊)



박 정 진

· 본회 회우
· 세계일보 문화부장
· 시인 · 한양대 겸임교수

문학평론가를 겸하고 있는 이시환 시인이 인도와 네팔, 티베트, 그리고 중국 등을 여행한 감동과 감회를 담은 여행수필집 <시간의 수레를 타고>(신세림 刊)를 펴냈다. 이 시인이 오랜만에 침묵을 깨고 펴낸 이 여행집은 평소 책과 말로만 들어오던 불교의 발상지 인도와 네팔, 티베트, 그리고 이 곳에 접경한 중국 사천 지역을 직접 걷고 겪으며 인간 삶 문제를 원천적으로 되돌아본 근래에 보기 드문 역작이다.

이 책은 특히 불교와 그 주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300여 개의 키워드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과 주석을 달았고 300여 장의 생생한 현지 사진을 실었다. 이곳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게도 실제로 가 본 것 같은 감흥을 일으키게 할 정도인데, 친절한 묘사와 시인 특유의 감동적 전달로 비불교인, 비전문가에게도 이해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가본 것 같은 감흥

불교의 화두인 ‘관계’에서부터 글을 시작한 이 책은 에베레스트 산이 티베트 사람들에게는 ‘초모랑마’(세상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것을 소개한다. 초모랑마 봉우리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을 보고 그는 감동한다. “이 땅의 바람도 그 곳으로부터 불어오고, 이 땅의 강물도 그 곳으로부터 흘러 내려온다. ‘세상의 어머니’로 통하는 이유를 알 듯하다.”

흔히 산은 아버지로 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이는 유대·기독교의 영향이 크다. 하느님 아버지, 그리고 산에서 이루어지는 모세의 기적 등 여러 이미지 때문이다. 에베레스트 산은 어머니였다. 그는 비록 히말라야를 등산하지는 못하지만 베이스캠프에 서서 히말라야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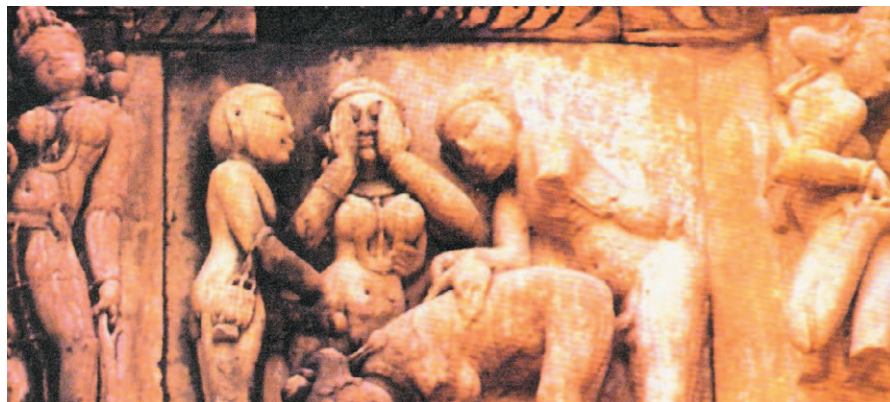
그의 감동은 힌두교에서는 시바신의 고향으로, 불교에서는 수미산으로, 본교(티베트의 샤머니즘)에서는 최고신이 있는 곳으로 여기는 티베트 서쪽의 성산(聖山), 강 린포체=카일라시 산으로 이어진다. 그는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 곳에서 한국의 백두산을 떠올린다. 어느 문화권에서나 산은 숭배의 대상이고 신(神)이 머무르는 곳이며 신화가 발생하는 곳임을 깨닫는다.

인도에 가면 모든 종교 수행자를 지칭하는 ‘사두’라는 무리가 있다. 성자

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인도적 문화가 만들어낸, 수행·고행·영적탐구를 생활로 삼는 무리다. 말하자면 석가모니도 일종의 이런 그룹에서 탄생한 성자라고 할 수 있다. 인도에서 고행이란 일상사에 가깝다. 다시 말하면 인도인에게는 삶이 바로 고행과 수행의 동의어이다. 인도의 무엇이 이와 같이 삶을 수행으로 일삼는 무리를 만들어냈다는 말인가.

‘세상의 어머니’ 에베레스트

네팔과 인도의 여인들은 티즈 축제 기간 동안 힌두성지 바라나시의 강가강(갠지스 강)에서 ‘촛불을 밝힌 꽃배(디아스)’를 띄운다. 여인들은 배를 띄우기 전에 시바신에게 무병장수와 복을



락시마나 템플의 수간(獸姦)조각(上), 비시바나트 템플의 성교행위 조각(下).

사진 3백 여장... 시인이 발로 쓴 여행 수필 인도·티베트 등 종교 발원지서 ‘삶’ 재조명



가장 가까에서 촬영한 초모랑마(에베레스트산).

기원하는 기도를 올린다. 촛불은 문화의 동서를 막론하고 종교적 의미, 혹은 종교적 예식에 동원되는 것을 느낀다. 강가강에는 시도 때도 없이 시신들이 밀려든다. 강변에는 시신이 불타는 계단식 화장터가 군데군데 모여 있다. 시신들은 강물에 잠시 적셔졌다가 장작더미에 올려진다. 상주는 짚으로 만든 불쏘시개에 종자불을 붙인다. 시신이 타 들어가는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시인은 그만 허탈감과 비정함에 빠진다. 더욱이 타다만 시신의 발을 물어온 개는 다른 한편에서 배를 깔고 누운 채 분주하게 물어뜯고 있다. 화장터 난간 한쪽 구석에 골판지로 만든 개집만한 공간에서 가부좌를 튼 사두는 명상에 빠져있다. 이견 그로테스크한 광경이다.

인도 북부 찬델라 왕국이 건설한 수

도 카주라호 사원의 에로티시즘에서 저자는 인간의 성(性)과 성(聖)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한다. 에로틱한 성교의 구체적인 장면들이 묘사된 조각을 여기서는 ‘미툰’이라고 하는데, 관능적인 입맞춤에서 수간(獸姦), 오럴섹스, 그룹섹스를 묘사한 외설스런 것들이 버젓이 있는 것은 적어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고 느끼는 것들과는 다른 이유일 것이라고 판단한다.

인도, 티베트 성전 곳곳에는 링가(시바신을 상징하는 남성의 성기)와 요니(시바신의 부인 샤크티를 상징하는 여성의 성기)가 있다. 카마수트라(성교육을 위해서, 신을 달래기 위해서, 혹은 성애를 통해 열반이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탄트라)의 믿음 때문에 등등 해설은 분분하다. 그 옛날 인류에

게 성은 오늘날과 달리 다산(多産)의 상징이었을 수도 있다. 밀교에서는 부처님도 입맞춤을 하고 있다. 인도의 경제발전소라고 불리는 뭄바이 시내 포트지구 마하트마 간디 거리에 가면 차트라파티 시바지 마하라즈 바스투 상그라할레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다. 여기에 합환불(合歡佛)이 있다. 부처는 연꽃 위에서 가부좌를 하고 여인의 허리를 감싸면서 키스를 하고 있다. 둘다 상반신에는 아무런 옷도 걸치지 않았다. 티베트 간체라는 도시에 가면 팔코르취데(白居寺)라는 사원이 있고 그 사원에는 쿨툼(十萬佛塔)이 있다. 이곳에도 남녀의 성교동작이 벽화로 그려져 있다.

섹스 조각들 사원에 버젓이

한편 아잔타 1번 석굴에서 묘사된 부처님 얼굴에서는 슬픔에 잠긴, 그러나 한없는 편안함, 입멸(入滅)에 든 얼굴을 확인한다. 부처님의 실제 모습에 가장 접근한 것으로 알려진 아잔타 부처님은 현재의 인도인과는 다른, 흑인 혹은 몽골인에 가깝다.

중국 사천성 아미산의 3천미터 고지에 들어서 있는 금정사(金頂寺) 만불각(萬佛閣)에서 그는 천상에라도 와 있는 듯 착각에 빠진다. 아미산의 허령동천(虛靈洞天)의 기운에 빠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는 자신을 보고 황홀, 그 자체에 빠진다. 이밖에도 이 책을 보면 인도, 티베트, 중국 등 3국의 접경 지역에 대한 수많은 종교적 체험과 궁금증을 동시에 엿보고 풀 수 있다.

세상사는 이야기

(上)

FM분당방송 설립

1단짜리 기사의 유혹

2004년 초여름. 일간지 문화란에 1단짜리 기사가 하나 실렸다.

기사의 제목은 '지역 밀착형의 소출력 방송 추진'이었다.

KBS 떠나 제2 방송인생 도전

내용을 읽어보니 한국에서도 일본과 영국처럼 그 지역에서만 들리는 소출력의 미니 방송국이 등장한다. 방송위원회가 조만간 방송사 신청과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방송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버릴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무언가 가슴에 와 닿는 것이 있었다. 일본의 COMMUNITY 방송이 연상되었다. 일본의 커뮤니티 방송은 15년의 역사에 전국적으로 160 여군데 있다는 소식은 내가 KBS의 동경특파원 시절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의 지역방송이 등장하는구나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분당에서 추진해 보자. 그 당시 나는 KBS에서 정년 퇴직하고 아침 라디오방송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제는 진행자가 아니라 방송경영인이 되려는 것이었다.

36년간 일 해온 KBS가 나의 첫 번째 방송 인생이라고 한다면, FM라디오에서 두 번째 방송인생을 시작하려고 한 것이다.

한 일간지의 1단 기사가 나의 제 2의 방송인생에 도전하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그해 가을 전국에서 모두 8군데의 소출력 방송국이 탄생했다.

서울의 마포. 관악. 분당. 공주. 영주. 대구. 광주. 나주에서 소출력 방송의 전파가 발사됐다.

만 3년이 지난 지금 소출력 방송은



정용석

- 본회 회우
- KBS취재주간
- FM분당방송 대표(現)

이제 '공동체 라디오'의 이름으로 바뀌어 방송법에 그 이름을 올려놓았다.

그동안 내가 만난 방송인들의 관심사는 3가지였다. 출력이 얼마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가. 방송의 콘텐츠는 무엇인가... 방송에 관련된 언론인들에게는 소출력의 공동체 라디오 출범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FM라디오는 방송인들에게는 매력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비용이 얼마 들지 않을 것 같고 광고만 잘 하면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 생



FM분당방송의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그러나 이러한 후원과 협찬은 결코 쉽지가 않았다. 방송국의 수입원은 우선 방송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발전기금이 가장 크다.

두 번째가 그 지역 지자체의 지원이다. 그래도 방송국 운영에는 크게 부족하다. 모자라는 부분은 외부의 협찬이

되고, 또 광고가 허용되어 제도적인 자원문제가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난제는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감을 나는 갖고 있다. 왜냐하면 지난 3년동안 함께 방송을 해온 진행자들의 열정과 지역의 정보와 소식을 들으려고, 지역FM에 채널을 맞추려는 이웃들의 관심이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음을 나는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분당의 중심지인 서현동 일대의 식당. 편의점. 카페에서 FM분당의 채널을 고정시켜 놓은 곳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

“지역밀착 소출력 방송 신청” 보도에 눈이 번쩍 특파원시절 알고있던 日本 커뮤니티방송 연상 라디오 진행자가 일약 경영자로 변신

각이 쉽게 든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

3년전 8개 라디오 첫 전파

3년 전 출범할 당시 8개의 공동체 라디오는 그 지역의 사회단체, 지자체, 대학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다. 방송전파를 타고 싶어하는 이웃들이 모이고, 대학생들이 참여하고, 지자체가 후원하는 체제였다.

방송위원회는 초창기에 그런 방향으로 권유했고, 실제로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막상 해보니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였다. 광고는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운영비는 외부의 후원과 협찬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었다.

나 후원회의 지원으로 메우고 있으나 등에 땀이 날 정도로 힘들다.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진행자들은 모두 자원봉사의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월급 주고 할 형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분당뿐만 아니라 다른 7군데도 거의 비슷한 실정이다.

세 번째 어려움은 출력이었다. 허가된 출력은 1와트로서, 이론상으로 반경 5킬로미터가 가청권이지만 건물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도심지에서는 잘 들리지 않았다. 일본은 15년전에 1와트로 시작해 지금은 20와트까지 올라가 있다.

우리 나라도 일본의 수준에 가려면 앞으로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제 막 시작한 전국의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앞으로 넘어야 할 산과 강이 많다. 출력이 높아져 잘 들리는 방송이

후원 · 협찬 · 자원봉사 진땀

방송진행에 참여하고 있는 60여명의 자원 활동자의 가정은 고정 청취자들이다. 지난 주말에는 삼성플라자 부근에서 만난 시민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댔다. “FM분당방송을 알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네 알아요. 그런데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씩 듣고 있어요”라는 답변이 꽤 많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지역FM에 채널을 맞추어 놓은 상점가 주인들. 자기 목소리를 주변의 지인들에게 들어보라고 보채는 진행자들. 승용차의 오디오 세트에 지역FM을 자동 입력시켜놓은 셀러리멘 들... 이들은 공동체 라디오를 응원해주고 있는 따뜻한 우리의 이웃들이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라디오의 앞날은 밝다.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지.

대한민국을 금융강국으로 키우겠습니다

국민소득 4만 달러 조기달성을 위해 은행이 앞서 달려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계강국들의 경쟁력은 금융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경제강국으로 가는 길 - 은행이 중심이 되어 금융선진국을 앞당기겠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Korea Federation of Banks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개인 및 기업금융도 역시 IBK기업은행!

모두가 기다리던 전자상거래 금융솔루션!

SGI 싸미쿨론

전자상거래의 매매순환과정에서 판매와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IBK기업은행과 **SGI서울보증보험**이
우대금리로 공동 지원하는 **무담보 신용대출!**



※ 민원안내 : 기업은행 예금민원 ☎02-729-6476,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 저희 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 윤리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리위반 신고센터 : ☎02-729-7490, e-mail : ibkemics@ibk.co.kr】 2008. 1. 현재

나의 취재備忘錄



총무로의 전설 (上)



김 화

- 본회 논설위원
-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 영화평론가

야외 세트장은 꿈도 못꿀 형편

1965년 4월의 어느 날, 새내기 연예기자인 나는 유현목 감독의 '순교자' 촬영장인 폐허의 서울 마포교도소를 찾았다. '순교자'는 재미 작가 리처드 김(김은국)의 소설을 예술가로 불리는 유현목이 메가폰을 잡

영화「순교자」 유현목 감독의 '예술魂'

았는데, 이 날 촬영은 폐허가 된 평양 거리를 국군이 수색하는 장면이었다.

그 때 마포교도소는 서울 교외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건물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마땅한 촬영장소를 구하지 못해 고심하던 제작진은 마포교도소의 부서진 붉은 벽돌 잔해와 철거작업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을씨년스러운 모습이 폭격으로 파괴된 평양 시가지와 흡사해 촬영장소로 정했다.

요즘 같으면 야외나 양평의 종합촬영소에 세트장을 지어서 촬영했겠지만 그 때의 제작여건으로는 벅차고 무리한 일이었다. 1965년부터 한국 영화가 황금기에 돌입했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영화제작 자본이 영세해서 시나리오 하나 달랑 들고 나와 입도선매식으로 지방관권 판매에 의존한 제작품토였기에 막대한 비용이 든 야외 세트장 건설은 꿈도 꾸기 힘들었다. 그래서 '순교자' 촬영 팀은 폭격으로 폐허가 된 평양 시가지와 비슷한 장소를 찾으려고 온 서울을 헤매다가 마침내 마포교도소 자리를 찾았다고 한다.

스트레스에 줄담배로 병석에

그 당시 고무신 관객이 주류를 이루었던 한국영화 흥행에서 관객의 기호와는 거리가 먼 신의 존재를 정면으로 다룬 이런 영화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는지 그 용기에 감탄할 뿐이다. '순교자'는 한 중군 목사가 전쟁 속에서 종교에 대해 회의를 품고 있는 장병들에게 몸소 행동하며 설교하면서 신의 존재를 확신케 한다는 내용이다. 아마 유현목 감독의 예술 지향적 고집과 종교적 신념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 감독의 부친은 해방 전 북한에서 개신교 목사였다. 유 감독은 어려서부터 기독교 신앙 속에서 성장해 왔다.

얼마 전 MBC가 주최한 한국영화대상 시상식에서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나와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유현목은 감동적인 수상소감으로 식장 내의 영화인들과 참석자들, 그리고 텔레비전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80세가 넘는 유 감독은 폐기종으로 경기도 일산의 동국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현역 감독시절 필름을 아껴 쓰라는 제작자의 압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피운 줄담배로 병을 얻었다"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말했다. 필름을 흥청망청 쓰며 불필요한 촬영장비까지 예비로 현장에 두고 촬영하는 요즘 감독들에겐 '호랑이



1965년 4월, 영화 '순교자'가 건물 철거작업 중이던 마포교도소 자리에서 촬영됐다. 나는 취재를 마치고 스태프·캐스트와 기념촬영을 했다. 맨 앞줄 카메라 우측으로 유 감독, 기획자 강유정, 필자. 뒷줄에 철모를 쓴 남궁원, 장동휘의 얼굴도 보인다.

“목숨건 전장에서 철모끈을 풀다니”

영세한 제작여건 속 “필름절약” 압력 외면

지시어긴 장면에大怒… 끝내 재촬영 관철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로 들릴 것이다.

영화 '순교자'는 흑백영화였다. 당시의 감독들은 컬러 필름 아닌 흑백 필름도 원하는 대로 쓰지 못하는 처지였다.

그 날 촬영장에는 김진규 장동휘 남궁원 윤일봉 등 당시 인기 배우들이 철모 쓰고 푸른색 군복에 군화까지 신고 완전무장한 채로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날 공들여 촬영한 신은 얼마 후 다시 촬영해야만 했다. 유 감독은 편집과정에서 중요한 배역의 남배우들이 모두 철모 끈을 매지 않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유 감독은 현장에서 배우들에게 분명히 철모 끈을 단정하게 매라고 지시했고, 조감독에게도 확인까지 하라고 엄명했다. 그런데 주연급 남배우 한 사람이 끈을 매면 답답하고 얼굴이 납작하게 나온다고 촬영에 앞서 슬쩍 철모 끈을 풀어버리자 다른 주연급 남배우들도 모두 따라서 풀어버린 것이다. 영화 촬영 현장에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배우들 간의 경쟁과 신경전이 비일비재했다.

김진규·남궁원·윤일봉 등 출연

술자리에서는 풀이지지만 영화 연출에는 간간하고 빈틈 없는 유 감독은 노발대발하고 재촬영을 고집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전쟁터에서 어떻게 군인이 철모 끈을 풀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조감독들은 유 감독으로부터 혼쭐나게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다. 우선 제작자 입장

에선 예정된 제작비가 초과 지출되고 진행부에서는 인기배우들의 스케줄을 한 날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다. 1965년만 해도 한국영화 전성기로 영화제작 편수가 200편이 넘었다. 따라서 인기 배우인 김진규 남궁원 등은 서너편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이 다반사였다.

당시 톱스타였던 신성일은 12편의 영화에 겹치기 출연해 그의 이태원 집 새벽은 그를 촬영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제작부장들이 진을 쳤고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같은 일은 통금이 풀리면 매일 되풀이 되는 이태원 신성일 집 새벽의 행사였다.

'순교자'의 제작사 이름은 합동영화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 제작 총괄은 기획자인 여자 강유정이었다. 강유정은 유현목의 동국대 후배로 그 후 연극계로 전환, 극단 '여인극장'을 창단해 활발한 연극 활동을 펼쳤다. 나는 취재를 마치고 현장의 스태프·캐스트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흥행엔 실패했지만 賞福 만발

당시의 영화계 상황이 이러했음에도 아무도 유 감독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마침내 재촬영은 이뤄졌고, 이 영화는 1965년 6월 서울 아카데미 극장에서 개봉했지만 흥행은 성공하지 못했다. 제작비는 700만 원이 들었다. 아마 그 때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면 강유정은 계속 영화관에 머물렀을 것이다.

'순교자'는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작품성은 인정받아 제9회 샌프란시스코영화제와 제26회 베니스영화제에 출품했다. 국내에서는 제5회 대중상 감독 음악 녹음 미술상을, 제2회 한국연극영화예술상에서 촬영상을, 제1회 백마상에서 남우주연상(김진규) 남우조연상(장동휘), 제9회 부일상에서 남우조연상(남궁원) 미술상을 수상했다.

요즘...



회 우 등 경



· 이경남(李敬南) 회우 (한국발전연구원 원장)= 3월 7일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민경국(閔庚菊) 강원대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국민이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것' 연제로 조찬 강연회를 개최했다.



· 이태교(李太敎) 회우 (서울부동산포럼 회장·서울사이버대학 석좌교수)= 3월 19일 오전 르네상스호텔에서 주한 베트남 팜 띠엔 반 대사를 초청하여 '베트남 부동산 투자 환경과 정보·정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채주(李埰柱) 회우 (전 동아일보 주필)= 3월 12일 동아일보 부설 재단법인 '화정평화재단' 신입 이사장에 선임됐다.



· 제재형(諸宰馨) 본회 명예회장(한기총 기독교 환경감시단장)= 지난 3월 28일부터 1주일간 싱가포르 등 아세안 여러 나라의 환경보전 실태를 살펴보고 4월 2일 귀국 예정. 이에 앞서 3월 26일엔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기념사업회 이사로서 이승만 저서 '한국교회 필박' 출판기념회를 정동 제일 감리교회당에서 개최했다.

신임이사에 정운종 회우



정운종(鄭雲宗) 회우가 신임이사로 선임됐다. 정운종 이사는 행사집행위원회 위원장직도 겸임하면서 주요 행사와 회우 장례업무도 맡게 된다.

■ 회비 내신 회우

· 2008년분

곽노형 구만완 구월환(2009년) 권영국 권혁만 김귀제 김성수 김시복 김영일 김영진 김용숙 김정삼 김중현(2009년) 김춘빈 나필성 남치호 동문성 박명근 박문송 박영길 백인호 백일진 손주환 신광식 신성순 신재욱 안성열 안종우 안평선 유지호 윤양중 윤호호(입회비) 은종일 이규섭 이덕주 이병천 이석희 이전문 이준우 이 휘 임상학 전신병 정광현 정구호 정재도 정준창 정창기 조강환 조덕연 조성국 지갑중 최무룡 최상완 최일영 한영섭 현원복 현준건 홍진태 허경구

· 2007년분

김귀제 동문성(05,06년 포함) 박영길 이병천(06년 포함) 이석희(06년 포함) 임상학 정구호 정준창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한편 김건이 상임이사는 유임됐다.

본회 2008년도 수첩 발행

대한언론인회는 지난 달 3월 1일자로 2008년도 회원수첩을 발행, 우송했다. 새 수첩에는 명예회원 6명을 포함해 총 508명의 명단이 수록됐다. 또 신입 임원을 비롯한 각 분과위원 명단, 정관, 운영규정, 임원선임에 관한 규정 등을 담았다.

· 수첩고침= 수첩내용중 정운식 회우의 생년월일은 '1928년 12월 12일'이 아니라 '1933년 7월 30일' 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또 윤기로 회우의 한자 이름 尹基老는 尹起老이므로 바로 잡습니다.

서울신문 전직 사원 모임

‘서우회보’ 창간



서울신문·스포츠서울 전직사원들의 친목모임인 '서우회' (회장 申禹植·본회 고문)가 회보 창간호를 지난 3월 1일자

동아일보 사장에 김재호 씨



동아일보는 지난 달 6일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김학준(金學俊·65) 대표이사 사장을 회장으로, 김재호(金載昊·44) 대표이사 부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엄기영 MBC사장 취임



엄기영(57) 신입 MBC 사장의 취임식이 지난 달 3일 오전 9시30분 서울 여의도 MBC 방송센터 D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엄 사장은 2월 29일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신입 사장으로 공식 선임됐다.

한겨레 사장 고광헌 씨 선임



한겨레 신문사는 지난 달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순현관에서 제20기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고광헌(高光憲·53) 내정자를 제14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경기일보 사장 이현락씨



경기일보는 지난 달 6일 제21기 정기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신선철 회장을 명예회장,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를 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입 대표이사 사장에 이현락 이사를 선임했다.

로 발행했다. 타블로이드 8면의 이 회보에는 신우식 회장의 창간사와 노진환 서울신문 사장의 축사를 비롯해 회원동

본회 日誌 (3월)

- 7일 = 편집회의
- 12일 = 후생복지위원회
- 20일 = '인간에 상' 심사위원회

言論街



신문協, 장대한 회장 재선임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달 18일 이사회와 총회를 열어 장대한 현 회장(매일경제신문 회장)을 38대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신문윤리위 김대성 이사장 연임



김대성(金大成) 제 주일보 회장이 4년 임기 한국신문윤리 위원장에 연임됐다. 신문윤리위는 지난 달 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 정기총회 및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김대성 이사장 등 이사와 감사를 선임했다.

강원민방 박용수 사장 재선임

강원민방(GTB)은 지난 달 18일 춘천 라데나 리조트에서 제7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용수 대표이사 사장을 재선임했다. 박 사장은 이에 따라 2년 임기의 대표이사 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방송기자연합회 발족

방송기자연합회가 지난 달 2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관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KBS 등 9개 방송사 기자협회 소속 기자 2천여명을 회원으로 삼고 있다.

초대 회장은 9개 방송사 기자협회장의 추대를 받은 MBC 임정환(49) 기자가 맡았다.

정·회원명단 등이 게재되어 있다. 작년 7월에 창립된 서우회는 올해 3월 현재 436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 바로잡기 : 지난호 3면〈분과위원회 위원 명단〉중 원로위원회의 '현영근'은 '현영건'으로, 8면〈是日也放聲大哭〉제하의 기사 두번쨀단 11줄째 '세종대왕의 장자 양녕대군'은 '세종대왕의 장형 양녕대군'으로 바로 잡습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확! 달라졌습니다”



고객만족

1. 인터넷 예약

※ 검사료 1,200원 할인받고, 예약 라인에서 빠르게 검사

2. 첨단장비 점검

※ 자동차검사 전문가가 첨단장비로 각종 센서 등 주요 부품 점검
▶ 간헐진단 받듯 자동차용 내시경·전자제어 자기진단기 등에 의한 정밀검사

3. 기능종합진단서 발급

※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차량관리에 활용
▶ 진단서는 필요시 인터넷으로 조회 및 출력 가능
▶ 리콜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조치방법 안내

4. 검사 모니터링

※ 편안한 고객 대기실에서 내차의 검사장면을 모니터로 직접 확인
▶ 자동차검사 전문가가 대신 운전하여 검사 실시

자동차검사 문의 1577-0990



미국의 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 보고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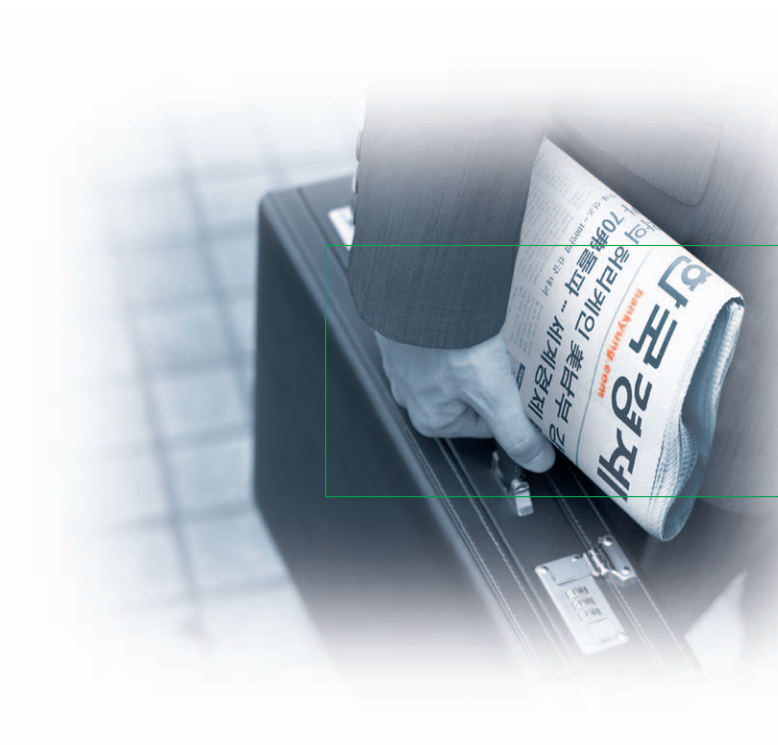


일본의 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 지혜를 찾습니다.



유럽의 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국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에는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월스트리트저널, 영국에는 파이낸셜타임스,
일본에는 일본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글로벌 경제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신문이죠.
한국에도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국내외 경제뉴스에서 비즈니스 업계의 정보와 돈의 흐름,
그리고 인터넷정보까지- 세상의 변화를 일깨워 줍니다.
알기 쉽고 읽기 쉬운 환경-
경제가 한눈에 보이는 세계 4대 경제신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환경을 읽으십시오.

한경과 함께 GET A SUCCESS!

경제가 한눈에

한국경제

www.hankyung.com

어린이의 마음으로 문화사랑을 실천합니다



문화를 체험하고, 감동을 느끼는 것 만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 그 생각이 문화 사랑을 실현하는 한국토지공사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메세나 활동, 아트펜스 공공전시, 지역주민초청 문화행사 등으로 문화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행사



땅울림합창단



토지박물관 관람 중

세상에 사랑을 더합니다



www.Lplus.or.kr

한국토지공사